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글 · 장호면 회원 · 건설안전기술사 / 양우건설 상무

정보화와 교통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급속히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 특히, 글로벌 경제시대에 있어서 특징지어지는 여러 양상들 중 하나가, 국제 노동력의 이동, 즉 선진국으로의 노동력 유입현상이다. 이 현상은 굳이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가 진척된 서구 선진국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계기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알려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 공장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의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서이다. 국내소득수준의 향상과 국내 근로자의 3D(Dirty, Difficult, Danger) 업종 취업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경제의 발전과 근로자 임금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업으로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단순 잡부가 아닌 형틀·목공·미장 등 숙련 기능공들이기 때문에 내국인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것은 논란이 어찌됐든, 지금 건설현장(특히 아파트건설현장)에선 절반 이상 심하면 80~90%가, 관리직이나 조장을 뺀 대부분의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주들은 내국인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대개의 건설사업주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의 수는 7,500명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임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실태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7개 현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해본결과,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무직종으로서 일반공은 44%, 조공 37%, 기능공 19%로 나타났다. 성비는 남자가 96%, 여자가 4%로 건설업 특성상 남성이 대부분이었으며, 교육정도는 무학 11%, 초졸 14%, 중졸 29%, 고졸 33%, 전문대졸 13%를 차지했다. 연령 평균은 35.57세로 국내건설현장의 내국인근로자의 평균연령 47.7세 보다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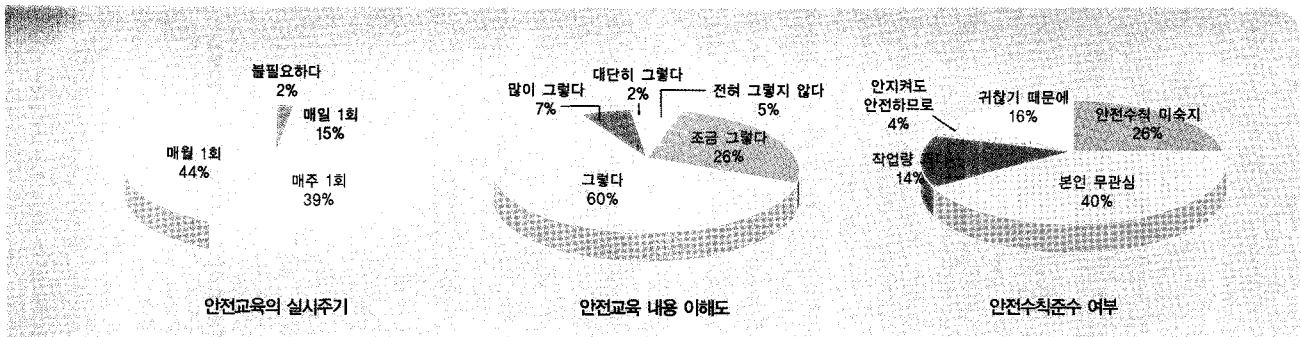
분석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교육정도에 있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도 적어 활용만 잘 한다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실태

우리나라에서 사망사고 요인 중 가장 많은 것은 교통사고인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길으로 드러난 수치를 보면 분명 그렇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다. 2005년 말 기준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6376명이며, 산업재해 사망자는 104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6배가량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4800만 전국민을, 산업재해가 1047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각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때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는 산업재해가 2.5명이고, 교통사고는 1.3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교통사고보다 두 배나 많다는 결론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외



국민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산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산재의 예방을 위한 노력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미비한지를 보여준다.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로부터 현행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각 7개 현장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근로자는 법적규정 횟수는 매일 1회보다 안전교육의 횟수를 적게 요구하는 것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재 작업현장에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정도는 그렇다 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순위로 조금 그렇다 27%로 나타났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면담결과 한국어로 위주로 진행되며, 약간의 현장용어 및 외국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내용의 이해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무관심 40%, 안전수칙 미숙지 26%, 귀찮기 때문에 16%, 작업량 과다 14%로 나타나 본인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관심이 높게 나타난 만큼 안전의식의 함양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여건을 알아본 결과, “사업장 작업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로 인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형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최적의 작업장 환경개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잦은 이동과 안전지식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 주장이 미흡하므로,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안전교육 및 수칙 등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 인식 미흡 및 사업장 안전장치의 점검과 보수 미흡,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문제 등의 의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방영되었던 두바이현장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공사관리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는 중동에서 근로자로 외국인 관리자의 지시를 받았었지만, 현재는 관리자로서 두바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한국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뿌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 외국인노동자에게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권리가 허용되고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불법채류 취업을 악용하여 폭행, 폭언, 임금체불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설건설업체와 관련부처들은 이에 대해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개선 활동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